

# 教育投資의 所得分配 效果

裴 茂 基

## 目 次

- I. 序 論
- II. 教育投資와 所得分配: 理論的 基礎
- III. 教育投資에 대한 需要要因 및 收益率과 所得分配
- IV. 教育投資에 대한 供給要因 및 教育費와 所得分配
- V. 教育에 대한 機會의 分布
- VI. 教育關係 制度, 政策의 所得分配效果
- VII. 結 語

## I. 序 論

所得分配에 直接, 間接으로 影響을 미치는 要因은 무수히 많다. 사람들이 教育, 訓練에 投資를 하여 보다 값있는 經濟, 社會的인 活

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러한 要因中의 하나이다. 이 論文에서는 그러한 教育投資를 決定해 주는 것이 어떤 要因들이며 그것을 통하여 所得分配에 어떠한 影響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分析코자 한다.

教育投資를 통하여 人的資本(human capital)이 蓄積되므로 물론 여기서 생각하는 所得이란 勞動所得이다. 그리고 所得分配은 크게 그 機能的 分配(functional distribution of income)와 人的 또는 階層別 分配(personal or size distribution of income)로 區分되는데 이 論文에서의 관심사는 後者이다.

社會的인 觀點에서 볼 때 教育投資에는 막대한 資金과 人員이 長時間에 걸쳐 動員되며, 教育을 통하여 人間의 體內에 蓄積되는 人的資本은 私的인 便益뿐만 아니라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各領域에서 公共的으로도 크게 影響을 미치며 社會的 移動(social mobility)의 可能性을 높여 世代間의 貧困의 相續을 막게 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다. 따라서 教育投資는 所得을 버는 힘(earning power)을 길러

筆者: 서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 教授 겸 韓國開發研究院 招請研究員

[이 論文은 近刊豫定인 朱鶴中 編著, 『韓國의 所得分配과 그 決定要因』(韓國開發研究院, 1979)에 실리는 拙稿「教育投資와 所得分配」(이하에서 原報告書라 함)를 要約한 것이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內容에 대하여는 同論文을 참고하기 바란다.]

준다는 뜻에서 所得分配 決定要因中的 가장 根源的인 한 要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教育投資와 所得分配間의 關係를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고찰코자 한다.

첫째, 教育投資의 크기와 勞動所得의 수준과의 사이에 높은 正의 相關關係가 있다는 假定下에 教育投資의 크기를 決定하는 要因이 무엇인가를 살펴 본다. 이를 위하여 Ⅱ章에서 이에 接近할 수 있는 理論的인 틀(framework)을 設定한다.

둘째, 基本模型에 의하여 教育投資의 크기를 決定해 주는 것은 크게 그 投資에 대한 需要條件과 供給條件이므로 Ⅲ章에서는 韓國에서의 需要條件을 概括하고 특히 教育投資의 收益率에 대한 既存研究結果를 分配를 고려하는 입장에서 再吟味한다. 또한 Ⅳ章에서는 教育投資에 대한 韓國의 供給條件을 概括하고 所得階層別로 教育費의 負擔比重 등을 分析한다.

셋째, 各級學校에 대한 教育의 機會의 分布를 所得階層別, 職業別, 그리고 從事上의 地位別로 고찰코자 한다. 이것은 Ⅴ章에서 學齡子女를 가진 家口中에서 실제로 在學生을 가진 家口の 比率로써 파악하였다.

네째, Ⅵ章에서는 Ⅴ章까지의 論議를 토대로 하여 教育關聯 制度 및 政策의 所得分配 效果를 分析하며 그로부터 政策的 示唆를 誘導코자 한다. 그리고 끝으로 Ⅶ章에서는 간단한 結論을 내리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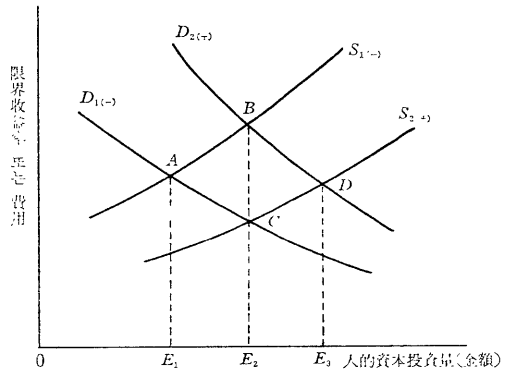
## Ⅱ. 教育投資와 所得分配 : 理論的 基礎

### 1. 教育投資의 微視的 및 巨視的 側面

教育投資는 분명히 어떤 個人이나 家計가 所得 및 其他의 要因에 의해 그 投資水準을 결정해야 하고 또한 이들은 그로부터 金錢的 또는 非金錢的인 便益을 補償받는다는 뜻에서 微視的인 側面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문제는 個人이나 個別家計에게만 이를 맡겨둘 수 없는 側面도 있다. 일찌기 「써로우」(L. Thurow)教授는 그와 같은 巨視的 接近의 意義와 必要性的의 論據로서 다음의 것들을 指摘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人的資本은 國防과 같은 순수한 公共財의 性格을 가진 점, 分配改善의 하나의 手段으로 教育投資를 社會가 提供하는 것, 人的資本을 사람이 갖추어야 할 必要物로 보고 最小限度의 그것을 갖추도록 한다는 점, 外部經濟的 效果가 個人的 教育投資決定時에 제대로 고려안되는 점의 補完必要性, 教育投資費用과 收益에 대한 豫想이나 知識이 國家가 個人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는 점, 社會的 觀點에서 보면 危險이나 不確實性에 기초한 豫想의 蹉跎이 훨씬 적다는 점, 公私間에 負擔해야 하는 利子率에서의 차이 등을 들고 있다(Thurow, 1970, pp.103-111). 따라서 教育投資에는 國家社會的인 干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圖 1] 人的資本投資에 대한 需要供給曲線



## 2. 基本模型

教育投資와 所得分配에 관한 分析은 1950年 代末부터 「슐츠」(T.W. Schultz), 「벡커」(G.S. Becker), 「민셔」(J. Mincer) 등에 의하여 體系化하기 시작한 人的資本理論(human capital theory)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效果的으로 接近될 수 있다.

人的資本理論에 의하면 人間の 生産性은 모두 같지 않으며 그러한 차이가 타고난 能力과 教育·訓練投資를 통하여 蓄積한 知識, 技術 등 人的資本의 차이에 基因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理論은 「휘셔」(Irving Fisher)<sup>1)</sup>에 의해 展開된 包括的인 資本概念에서 論理的 기초가 확립되었다<sup>2)</sup>. 그에 의하면 所得의 흐름의 源泉이 되는 것을 資本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物質的인 資本뿐만 아니라 人的資本까지도 資本으로 포함되며, 人的資本이 所得의 흐름의 더 큰 源泉임을 重視한다. 「벡커」등에 의하여 展開된 아래의 模型도 위와 같은 人的資本理論의 한 發展 형태이다.

純勞動所得函數를 다음과 같이 定義하는데서 出發해 보자. 어떤 사람의  $t$ 年齡에서의 純勞動所得  $E_t$ 는 다음과 같이 定義할 수 있다. 즉,

$$E_t = X_t + k_t - C_t \dots\dots\dots(1)$$

여기서  $X_t$ 는 아무런 人的資本投資가 없었을

것을 가정할 때 그 사람이  $t$ 年齡에서 받을 勞動所得이며,  $k_t$ 는 그 이전까지의 人的投資로 인하여  $t$ 年齡에 받게 되는 總收益이며,  $C_t$ 는  $t$ 年齡 그 해에 人的資本에 投資한 費用이다. 그런데 總收益  $k_t$ 는 內容上 投資額에 收益率을 곱하고 그것을 勞動力으로 일하는 기간의 有限性에 비추어 調整해 준 것을 投資期間에 따라 合算한 것이다. 즉,

$$E_t = X_t + \sum_{j=1}^n r_{t-j} f_{t-j} C_{t-j} - C_t \dots\dots\dots(2)$$

여기서  $r_{t-j}$ 는  $t-j$ 期에 投資된 資本에 대한 收益率이며  $f_{t-j}$ 는 經濟活動期間의 有限性에 대한 調整係數이다.

여기서 다음 두 가지를 假定한다. 첫째, 各種形態의 人的資本投資와 연결 안되는 勞動所得部分이 작다는 의미에서  $X_t$ 가 대단히 작고 無視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人的資本 한 單位 한 單位가 완전히 同質的이어서 모든 單位가 꼭 같은 크기로 勞動所得을 增大시킨다는 것이다.

이렇게 假定할 때 投資되는 人的資本의 量을 金額으로 橫軸에 表示하고, 縱軸에 限界收益率(marginal rate of return) 혹은 費用(cost)

1) Irving Fisher, *The Nature of Capital and Income*, Macmillan, 1906.  
 2) 物的·人的 兩資本 概念과 人的資本의 重要性에 대하여는 T.W. Schultz, "Human Capital" *International Encyclopedias of Social Sciences*, 1968, Vol. II, pp.278-286 참조.

을 表示하면 人的資本投資에 대한 右下向의 需要曲線과 右上向의 供給曲線을 [圖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圖 1]에서의  $D_1, D_2$  曲線은 收益率로 測定된 投資에 따른 限界便益(marginal benefit)을 나타내며 投資者인 個人에게 人的資本投資에 대한 需要曲線이 된다. 한편  $S_1, S_2$  曲線은 個人別로 負擔하게 되는 利率로 表示된 投資資金(教育費)에 대한 限界調達費用(marginal financing cost)을 나타내며 人的資本投資에 대한 供給曲線이 된다. 따라서 人的資本投資를 결정하는 個人은 限界便益이 限界調達費用보다 큰 限 投資를 擴大할 것이며, 自身の 適正한 人的資本投資를  $D$ 와  $S$  曲線이 만나는 點에서 決定할 것이다.

이상이 가장 基本的인 模型인데 이를 個人의 行爲에 局限시키지 않고 所得分配問題의 解明에 利用하기 위하여 社會構成員 多數에게 擴張해 볼 수 있다. 便宜上 社會의 全構成員을 人的資本投資決定面에서 需要條件과 供給條件이 다른 몇 개의 集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圖 1]에서  $D$  및  $S$  曲線에 (+)와 (-)의 부호를 붙여 두었는데 (+)는 有利한 條件에 있는 集團이며 (-)는 不利한 條件의 集團을 表示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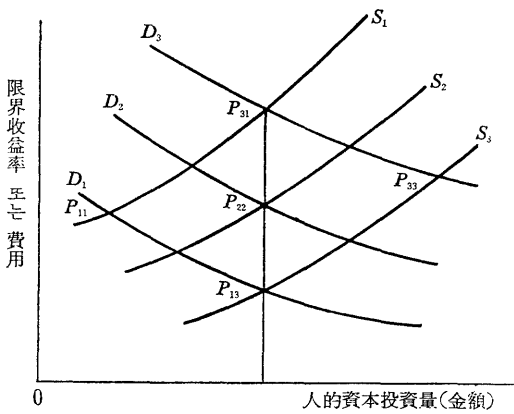
가령 需要, 供給 兩側에서 모두 有利한 集團은  $D$  點과 같은 곳에서 投資水準이 決定되어  $E_3$  만큼의 높은 人的資本投資를 할 것이며 兩條件이 모두 나쁜 集團은  $A$  點과 같이 낮은 ( $E_1$ ) 投資水準으로 될 것이다. 한편 需要와 供給條件中 어느 한 쪽이 不利한 集團은 여기서 간단히 하기 위하여  $B, C$ 와 같이 똑같은  $E_2$ 의 投資水準으로 되도록 表示하였다. 같은  $E_2$ 의 수준이라도  $B$ 와  $C$ 는 各各 어느 쪽의

條件이 不利하나에 따라 內部的으로는 매우 對照的이다.

$B$ 에서는 높고 有利한 需要條件을 가지고 있으나 教育費調達能力이나 機會面의 制約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實現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C$ 에서는 비록 知的 能力과 같은 需要條件은 대단히 不利하더라도 教育費 調達能力이나 機會面에서의 優位性으로  $B$ 條件의 集團과 같은 教育投資를 實現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需要 및 供給條件의 差異를 보는 立場에 따라서 需要나 供給條件中의 어느 하나에 있는 차이가 더욱 支配的이고 또한 重要하다고 보는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 換言하면, 需要條件에는 個人間에 큰 차이가 없고 資金調達費用條件에서의 차이가 가장 크고 중요하다고 보는 見解가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그 反對로 供給條件 즉 機會上으로는 個人間에 큰 차이가 없는데 教育投資를 效果의으로 할 수 있는 能力(capacity)의 差, 나아가서는 投資로서 기대되는 收益의 差가 個人間에 크다고 보는 見解이다. 前者의 見解를 平等主義者的 接近("egalitarian" approach)이라고 하고 後者の 그것을 「엘리트」的 接近("elite" approach)이라고 한다.

平等主義者的 接近은 하나의 共通的인 需要曲線에 서로 다른 條件의 供給曲線들이 만나는 關係이다. 이들의 見解에 따르면 需要曲線이 右下向하므로 (1)式이나 (2)式에서의 勞動所得( $E$ )의 分布는 人的資本의 投資한 費用인  $C$ 의 分布보다 더욱 平等하게 된다. 그뿐 아니라  $E$ 와  $C$ 는 需要曲線이 彈力的일수록 더욱 不平等하게 分布되고 非對稱形으로 된다. 한편 「엘리트」的 接近은 共通的인 하나의 供給曲線에 여러가지 높이와 기울기의 需要曲線이 對

〔圖 2〕 能力과 機會의 差異에 따른 人的資本 投資의 均衡水準



應하는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勞動所得의 不平等度가 教育投資의 不平等度보다 더욱 커진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供給曲線의 右上向性 때문에 投資(量)가 늘어갈수록 平均收益率이 커지기 때문이다. 여하간 이러한 두가지 對照的인 見解는 教育投資의 所得分配 效果를 考察함에 있어서 아주 適切한 對照的인 觀點을 제공해 준다.

앞에서 [圖 1]과 같이 基本模型을 그림으로 나타내었을 때  $D$ 와  $S$  曲線은 서로 獨立的인 것으로 假定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知的으로 우수한 학생이 條件이 좋은 獎學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처럼  $D$ 와  $S$  間에 相互依存的인 경우도 많다. 그 依存性이  $D$ 가 有利한 條件일 경우  $S$ 도 有利하게 된다는 式으로 正의 相關關係일 수도 있고, 負의 그것일 수도 있으며, 물론 獨立的인 수도 있다. [圖 2]에서 보여 주듯이 正의 相關일 때에는  $P_{11}$ ,  $P_{22}$ ,  $P_{33}$  과 같이 教育投資量의 隔差 擴大와 이로 因하여 所得隔

差 擴大를 가져오고 극단적으로 圖示되어 있지만 負의 相關일 때에는  $P_{31}$ ,  $P_{22}$ ,  $P_{13}$  등과 같이 그 隔差가 없거나 크게 縮少되는 傾向을 띠울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물론  $D$ 와  $S$  間의 正의 相關關係가 클 가능성이 크다.

이 基本模型은 어느 정도의 弱點이나 앞으로 더욱 발전되어야 할 研究課題로 남아 있는 것도 적지 않으나 그러면서도 教育投資와 所得分配와의 關係를 說明하는 데에 有用하게 사용될 수 있다<sup>3)</sup>.

### 3. 教育關聯制度의 所得再分配 效果: 美國의 一事例研究의 結果

美國의 「한센」(W. Lee Hansen, 1970) 教授는 租稅制度, 補助金制度 및 公立大學制度 등이 가지는 所得再分配 效果를 美國의 위스콘신州와 칼리포니아州를 比較하면서 보여주고 있다. 그의 研究結果에 따르면 州立大學制度에서 教育費를 一律적으로 싸게 하는 것이 그와 같은 大學에 在學生을 가진 家口에 補助金을 주고 있으며 名門大學 在學生에게 보다 많은 補助金이 주어지되 이들 學生들의 家口所得은 一般的으로 높고, 또한 이들 高所得家口들이 그 所得에 相應하는 稅金을 내고 있지 않아서 逆進的인 所得再分配가 큰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逆進性은 間接稅의 比重이 클수록 더욱 심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센」教授도 지적하듯이 특히 高等教育에의 機會를 均等히 하기 위하여 教育費를 公共的으로 負擔해 주고 學生들의 公納金을 모든 學生들에게 一律적으로 낮게 하거나 그것을 없애는 것이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機會의 均等으로 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Hansen,

3) 이러한 점에 관하여는 이 論文이 근거로 삼은 原報告 書を 참조할 것.

1970, pp. 335-340).

### Ⅲ. 教育投資에 대한 需要要因 및 收益率과 名得分配

#### 1. 基本模型 需要要因의 韓國의 特徵

앞에서 본 基本模型의 需要要因 가운데 韓國의 諸般 사정에 비추어 模型의 利用과 解釋에 注意를 要하는 것이 몇가지 있다.

첫째는 巨視動態的인 需要의 變動을 적절하게 個人的 投資需要曲線에 나타내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産業構造 및 雇傭構造의 急激한 變動을 경험하고 있는 韓國의 경우 이것은 個人的으로는 말할것도 없고 國家社會的으로 判斷이 어려운 것이다. 둘째로는 教育投資決定時에 非金錢的인 收入이나 消費目的의 投資分이 대단히 크다는 것이다. 그것은 韓國이 教育을 통하여 社會的 移動의 可能性이 큰 社會이고 특히 女性들의 경우 消費目的의 分이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지금까지 勞動供給水準이 需要를 크게 上廻하여 賃金水準이 지나치게 抑壓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한 賃金水準에 근거하여 收益率을 計算하고 또한 그것이 먼 장래에도 적용될 것으로 假定하여 教育投資의 決定에 사용한다는 것은 過誤를 犯하기 쉽다는 점 등이다.

#### 2. 教育投資者의 收益率과 所得分配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金錢的인 投資收益만 勘案된 收益率은 教育投資가 投資者에게 가져다 주는 여러가지 金錢的인 報酬와 非金錢的인 滿足 등의 一部에 지나지 않는다. 이밖의 消費目的에 의한 投資, 社會的 地位를 向上시킬 수 있는 可能性, 社會生活을 보다 合理的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能力의 培養등과 같은 私的 내지 個人的인 補償外에도 教育 받은 市民이 늘어감에 따라 社會秩序의 向上, 文化의 向上등 社會的인 外部效果도 기대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씨로우」의 지적처럼 個人的인 需要判斷은 社會的인 需要에 비추어 틀릴 可能性도 크다. 따라서 金錢的인 收益率에 의하여 投資를 決定하는 데에는 限界가 있으며 그 收益率은 진정한 教育投資의 收益率을 過小評價할 可能性이 크다.

다음에는 전체적인 收益率의 高低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所得階層別로 본 限界收益率에 커다란 隔差가 있다는 점이다. 所得階層을 크게 둘로 나누고 또한 需要條件은 同一하다고 할 때 低所得階層의 限界投資者의 收益率이 高所得階層의 그것보다 훨씬 높을 可能性이 크다는 점이다. 이것은 물론 社會的으로는 非效率을 의미하는 것이며 前者의 階層에게 投資機會를 擴大하고 만약 大學定員과 같이 目標投資量이 一定하다면 後者인 高所得階層의 投資를 그만큼 抑制하는 것이 效率性을 높일 것이다<sup>4)</sup>.

#### 3. 收益率 推定의 事例와 分配的 觀點에서의 檢討

韓國의 教育投資에 대한 收益率을 推計한 事例는 지점까지 4個 研究結果에서 찾아볼 수

4) 여기서는 물론 兩階層의 限界收益率에 대한 完全한 知識을 가진 것을 전제하고 있다.

있다. 이 研究들은 豫想收益과 教育費에 관하여 利用한 資料들도 저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를 平面으로 對比시킨다는 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便宜上 이들을 한데 表示한 것이 <表 1>이다. 이 表에 의하면 利用된 資料와 推定方法上的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結果值들은 이상할이만큼 差異가 작은 것 같다.

<表 1> 韓國의 教育投資 收益率 推定結果

學校級別	金光錫 (1967) <sup>1</sup>	플로리다 州立大學 (1969) <sup>1</sup>	人力開發 研究所 (1969) <sup>1</sup>	鄭錫泳 (1971) <sup>1</sup>
中學校	12.0	20.2	-1	8.2 (13.9) <sup>2</sup>
高等學校	9.0	11.0	15	14.6 (20.3) <sup>2</sup>
大學校	5.0	9.5	8.5 (女 5%)	9.3 (15.0) <sup>2</sup>
職業訓練			中卒者 (6個月): 15%	

註: 1) ( ) 안의 年度는 研究基準年度임.

2) 製造業部門의 實質勞動所得增加率 5.7%를 적용하여 修正한 豫想收益率.

資料: Kwang Suk Kim(1968), Morgan(1971), 人力開發研究所(1971), Chang Young Jeong(1974).

이들 研究者들은 플로리다州立大學의 경우를 제외하면 結論에 慎重을 기하면서도 대체로 教育投資의 收益率이 實物投資의 豫想收益率 약 20%보다 낮으므로 教育投資의 規模를 줄이는 것이 妥當하다는 方向에 있어서는 共通의이었다. 이러한 開拓者인 研究努力과 상당한 業績은 높이 評價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1978年度의 大幅의인 大學入學 定員의 上向調整에 이어 1979年度에 專門學校를 포함하여 大學定員을 무려 5萬名이나 增加키로 하고 1980年에도 비슷한 增加를 豫想하고 있는 최근의 事態에 비추어 볼 때 教育投資의 收益率 推定值 自體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더욱 현저하게 드러났다고 할 수 있고, 더구나

實物資本 投資에 대한 收益率과 對比시켜 教育投資의 水準을 決定한다는 것은 더욱 問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韓國의 경우에는 前述한 바와 같이 金錢的인 教育投資의 收益이 제대로 파악되도록 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非金錢的인 便益도 대단히 클 것으로 期待되기 때문에 收益率 推定值만으로 教育投資의 多寡를 判斷한다는 데에는 無理가 많으며 꼭 그렇게 해야 할 때에는 극도의 慎重을 要한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여러 研究에서는 全般的인 教育投資의 收益率推定에 關心이 集中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國民所得의 上昇으로 社會開發에 대한 國家의 投資規模도 擴大될 餘地가 커졌으므로 教育投資政策에 있어서는 低所得層에게 教育投資의 機會를 擴張시켜 전체 社會的인 投資效率의 提高는 물론, 長期的으로 教育을 통한 所得分配의 平等化에도 寄與토록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이와 관련되는 研究方向에도 非金錢的인 投資便益의 推定과 그것을 가급적으로 精確하게 反映한 진정한 投資收益率推定에 努力하고, 또한 社會全體의인 勞動需要의 變動(勞動市場 事情의 變動)을 基本模型內에 導入하는 등의 改善이 追求될 必要가 있다.

#### IV. 教育投資에 대한 供給要因 및 教育費와 所得分配

##### 1. 基本模型 供給要因의 韓國의 特徵

基本模型에서 供給條件은 教育費의 限界資

金調達費用에 관련되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것을 결정하는 要因이 무엇이며 이들의 韓國에서의 사정은 어떠한가? 教育投資를 決定코자 하는 當事者에게 資金調達費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첫째, 그가 屬한 家口의 所得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基本模型에 의하면 所得이 높은 家口의 教育對象者는 調達費用인 供給曲線이 낮고 또한 彈力的인 모양을 取함으로써 다른 사정이 同一하다면 더 높은 人的資本의 投資水準을 決定하게 된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韓國의 경우는 아직도 전반적인 所得水準이 낮아서 高等教育등과 같이 教育費負擔이 큰 學校級에 대하여는 所得의 不足으로 進學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教育機會의 不平等이 階級の 所得分配의 不平等과 연결되는 惡循環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推論은 전반적인 階層別 所得分配의 惡化傾向과<sup>5)</sup> 家計費中 教育費의 漸進的인 增加現象에 의해서도 뒷받침 된다. 즉, 後者에 대하여는 都市家計調査에 의하면 年間 家計費支出中 教育費의 比率이 1964~66年 平均이 都市의 4.8%, 農村的 4.7%에서 1975~77年 平均 7.2%와 7.4%로 增加한데서도 알 수 있다.

둘째로는 供給要因 가운데 教育費에 대한 制度的인 혹은 私的인 金融의 可能性을 들 수 있다. 가령, 家口의 所得이 낮다고 하더라도 獎學金이나 無利子, 혹은 低利 長期의 教育費 融資制度가 確立되어 있다면 供給條件面에서의 不平等은 반드시 클 理由가 없게 된다. 그러나 韓國에서는 아직은 대단히 例外的인 경우를 除外한다면 制度的으로 그와 같은 惠澤

을 받기가 어렵다. 그리고 私的 金融의 可能性도 銀行 등의 利用은 대단히 어렵고 私債도 利率이 지나치게 높아서 더욱 그 가능성이 작다. 1978年 『문교통계연보』에 의하면 各級 學校의 獎學金 受惠者의 全體學生에 대한 比率은 대체로 3~8%에 不過하며 대단히 金額이 적은 減免까지를 모두 포함한 學費減免者 比率도 20~40% 정도이다. 그리고 受惠者 또는 減免者의 1人當 受惠金額도 中等教育機關에서는 대체로 1년에 2萬~3.5萬원 정도, 高等教育機關에서는 獎學金 受領者 1人當 대체로 10萬원, 學費減免의 惠澤은 1人當 4.5萬원 정도이다.

이 밖에도 특히 大學 등에서는 教育을 받기 때문에 喪失되는 所得(forgone earnings)이 크며(「백커」에 의하면 美國의 경우 大學教育 總費用의 切半 이상이라고 함), 夜間大學, 通信大學, 時間制 職場, 成人教育 등등의 發展의 不振이나 無償教育을 원칙으로 하는 義務教育年限이 짧은 것 등도 韓國의인 供給條件의 特徵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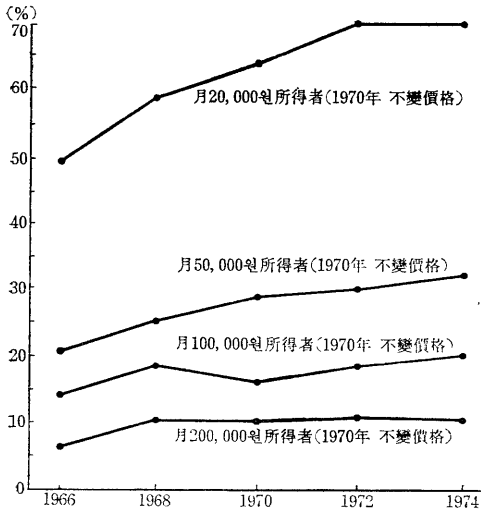
## 2. 教育費의 負擔能力과 所得分配

教育投資에 따르는 便益은 個人과 社會가 다같이 받게 되므로 그 費用의 負擔도 어느 한 쪽에서만 全的으로 그것을 맡기가 어려운 문제이다. 韓國의 경우 國防費와 經濟成長을 위한 投融資 資金需要가 컸기 때문에 教育費의 支援은 義務教育을 제외하고는 微微한 실정이었다. 1950~78年間的 平均을 보면 政府豫算中 文教部豫算은 13.2%(1978~78年 平均은 16.8%임), 文教部豫算中 義務教育費의 比重은 같은 期間中 72.9%(1970~78年 平均 69.4

5) 朱鶴中, 「階層別 所得分布의 推計와 變動要因」, 『韓國開發研究』 創刊號(1979. 3), 韓國開發研究院, 1979 참조.



〔圖 3〕 所得階層別 學生負擔 1人當 教育費 對 可處分所得比率(大學校)



%임)로 상당히 큰 부분이 義務教育費에 充當 되었다.

그리고 教育費의 成長을 보면 公教育費는 1966~75年間に 平均 10.9%로서 同期間의 GNP 成長率 10.2%를 약간 上廻한다. 反面 私教育費(教材, 學用品費, 課外活動費, 通學, 下宿費 등)의 增加率은 같은 기간중에 6.2%

이며 總教育費의 그것은 8.6%였다(Yungbong Kim, 1976, p.30).

다음에는 教育費의 所得階層別 負擔狀態를 보기 위하여 各給學校에 대하여 學生負擔 1人當 教育費 對 可處分所得의 比率을 所得階層別로 計算하여 보았다<sup>6)</sup>. 먼저 大學校의 경우를 나타낸 것이 <表 2>이다. 表에 의하면 첫째로 그 比率들이 모두 크게 增加하여 負擔이 加重되어 왔다는 것과, 둘째로 그 增加幅에 있어서 所得階層間에 상당한 隔差가 있으며 低所得層에서 學生 1人當 負擔하는 教育費가 그들 階層의 可處分所得中의 대단히 높은 比重을 차지하여 그들이 相對的으로 더욱 子女의 大學進學에 不利한 位置로 되어왔다는 점이다. <表 2>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圖 3]인데 各 所得階層의 同比率의 變化를 나타내는 線들의 기울기는 위에 있는 低所得層의 것일수록 더욱 傾斜度가 크게 되어 있다.

그리고 高等學校와 中學校의 同比率을 보면 兩學校級에서 共通的으로 모든 所得階層에서 그 比率이 1966年 以來로 약간씩 增加하여 왔

〈表 2〉 所得階層別 學生負擔 1人當 教育費 對 可處分所得比率(大學校)

(단위 : %)

基準勤勞所得(원) (1970年不變價格)	1966	1968	1970	1972	1974
240,000 (月 20,000)	49.1	58.7	64.5	71.1	70.2
600,000 (月 50,000)	21.5	25.3	28.2	30.4	32.9
1,200,000 (月 100,000)	14.1	18.9	16.9	19.0	20.6
2,400,000 (月 200,000)	7.0	11.8	11.1	12.4	11.9
學生負擔 1人當教育費(원) (1970年不變價格)	109,674	126,897	142,978	155,206	148,220

資料 : 1) Yungbong Kim, "Education and Economic Growth", KDI Working Paper 7605, p 37의 1970年 不變價格 教育費.

2) 所得稅法 및 國稅統計年報 各年度別 資料.

6) 구체적인 計算方法과 그 制約에 대한 論議 등은 原報告書 N-2를 참조할 것.

다는 것이다. 특히 지적할 수 있는 것은 中學校에서의 學生教育費 負擔率이 高等學校의 比率들 보다 약간 그 增加幅이 더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兩學校級間에는 教育費負擔率의 隔差가 縮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國民學校에 대하여 보면 1966~74年間에 그 比率이 거의 不變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國民學校教育이 無償을 原則으로 하는 義務教育인 점이 그 가장 큰 理由인 것 같다.

다음에는 같은 方法으로 大學生의 納入金 對 可處分所得을 比較한 것이 <表 3>이다. 이것은 公納金만이 고려된 것이므로 教育費의 경우보다 전체적으로 比率이 낮게 나타나도록 된 것에 留意할 필요가 있다. 이 表로써 보더라도 低所得者子女의 大學進學은 대단히 어렵고 또한 그것이 私立大學일 경우 그것이 尤甚한 것을 알 수 있다.

## V. 教育에 대한 機會의 分布

### 1. 各級學校 水準別 教育機會의 分布

가. 大學教育에 대한 機會의 分布

各級學校에 대하여 教育의 機會가 어떻게 分布되어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基礎的인 作業이지만 그와 같은 것에 관한 資料가 거의 全無한 實情이므로 이 研究에서는 그와 같은 分布狀態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重點을 두었다. 여기서는 標本의 規模가 대단히 크고 또한 所得을 調査한 바 있는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에서 調査한 1974年 11月의 特別雇傭統計 調査資料를 利用하였다. 이 資料를 이용하여 各級 學校의 該當學齡의 子女를 家口中 在學生을 가진 家口數와 그 比率을 計算하였다. 이 計算値는 물론 엄격한 學齡制限(예컨대 大學生의 경우 18~21歲) 때문에 다소간 過小評價될 가능성이 있다.

<表 3> 所得階層別 可處分所得에 대한 大學學生納入金の 比率(1976年)

(단위: %)

所得階層	稅 率	所 得 稅	可處分所得	學生納入金 對 可處分所得 比率	
				國立大: 實業	私立大: 實業
48萬원	12%	4.32萬원	43.68萬원	39.79%	79.12%
72	15	7.20	64.80	26.82	53.33
96	18	10.80	85.20	20.40	40.56
120	21	15.12	104.88	16.57	32.95
150	25	21.42	128.58	13.52	26.88
180	30	28.92	151.08	11.50	22.88
240	35	46.92	193.08	9.00	17.90
300	40	67.92	232.08	7.49	14.89
480	45	139.92	340.08	5.11	10.16
720	50	247.92	472.08	3.68	7.32

資料: 金鍾喆外, 『大學財政의 適正化에 관한 研究』, p.227, 1977. 1.

〈表 4〉에는 所得階層別 大學生 該當家口の 在學生比率이 表示되어 있다. 그 特徵으로 우선 들 수 있는 것은 所得階層別로 大學在學生比率에 隔差가 대단히 크다는 것이다. 所得階層의 上限이 더욱 細分되었다라면 그 隔差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그리고 이 比率의 所得階層別 隔差는 都市의 경우가 農村의 경우보다 더욱 甚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都市에서 3萬圓未滿 階層의 在學生比率이 3.3%인데 15萬圓 以上の 階層에서는 53.5%이

며 農村의 경우는 각각 0.8%와 7.1%이다.

둘째, 都市와 農村間의 전체적인 兩地域間의 差異도 크다는 것이다. 兩地域의 전체 平均이 각각 15.0%(都市)와 1.6%(農村)이라는 거의 10배에 달하는 在學生比率의 隔差는 豫想했던 것보다 분명히 더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에는 職業別 차이가 〈表 5〉에 表示되어 있다. 表에 의하면 行政 및 管理職從事者의 在學生比率(全國 44.6%)이 都市, 農村을 막

〈表 4〉 所得階層別 大學生 該當家口の 在學生比率(1974年)

所得階層	全 國			都 市			農 村		
	該家口數 <sup>1)</sup>	在學生數	%	該家口數 <sup>1)</sup>	在學生數	%	該家口數 <sup>1)</sup>	在學生數	%
0	6,084	796	13.1	4,917	796	16.2	1,167	0	0.0
30,000 未滿	301,610	4,879	1.6	99,097	3,272	3.3	202,513	1,607	0.8
30,000~60,000 未滿	578,098	28,538	4.9	288,013	25,085	8.7	290,085	3,453	1.2
60,000~100,000 //	279,399	30,977	11.1	161,107	27,877	17.3	118,292	3,100	2.6
100,000~150,000 //	91,744	22,391	24.4	62,149	21,037	33.8	29,595	1,354	4.6
150,000 以上	49,955	20,896	41.8	37,410	20,004	53.5	12,545	892	7.1
計	1,306,890	108,477	8.3	652,693	98,071	15.0	654,197	10,406	1.6

註: 1) 大學校의 該當家口數는 18~21歲의 子女를 가진 家口數인.

資料: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1974 특별고용통계조사보고』(1976.12)의 자료에서 計算作成.

〈表 5〉 職業別 大學生 該當家口の 在學生比率(1974年)

職 業	全 國			都 市			農 村		
	該家口數 <sup>1)</sup>	在學生數	%	該家口數 <sup>1)</sup>	在學生數	%	該家口數 <sup>1)</sup>	在學生數	%
專門, 技術 및 關聯職從事者	38,411	11,914	31.0	28,817	11,303	39.2	9,594	611	6.4
行政 및 管理職從事者	19,998	8,911	44.6	18,487	8,706	47.1	1,511	205	13.6
事務 및 管理職從事者	78,946	19,335	22.5	65,355	18,496	28.3	13,591	839	6.2
販 賣 從 事 者	174,636	20,875	12.0	141,736	20,077	14.2	32,900	798	2.4
서 어 비 스 職 從 事 者	53,927	6,809	12.6	43,225	6,263	14.5	10,702	546	5.1
農·畜·林·水産 및 수 업從事者	535,045	8,720	1.6	50,445	3,019	6.0	484,600	5,701	1.2
生産 및 관련, 운수장비 운전사 및 단순노무자	222,231	17,836	8.0	175,791	16,705	9.5	46,440	1,131	2.4
計	1,123,215	94,400	8.4	523,877	84,569	16.1	599,338	9,831	1.6

註: 1) 大學校의 該當家口數는 18~21歲 子女를 가진 家口數인.

資料: 〈表 4〉와 같음.

른하고 가장 높으며 農林畜水産(1.6%)과 生産職(8.0%) 종사자가 현저히 낮은 것이 對照의이다. 이러한 職業(種)間的 커다란 隔差는 職業間的 所得의 隔差 以上の 것으로 보여지며 家口主의 社會的 地位나 職業이 직접적으로 子女의 大學進學 與否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다.

다음에는 家口主의 從事上의 地位別 資料이다. <表 6>에는 그에 따른 在學生比率이 表示되어 있는데 雇傭主(28.5%)와 常傭雇(19.5%)가 월등히 높고 다른 地位에서는 5% 未滿으로 되어 있다. 또한 農村內部的으로는 比率의 差異가 상대적으로 그다지 크지 않은데 비

하여 都市에서는 그 差異가 상당히 큰 것이 또한 特徵의이다.

나. 高等學校 教育에 대한 機會의 分布

所得階層別 高等學生에 대한 在學生 比率이 <表 7>에 表示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역시 전체적으로 都市와 農村間에는 그 比率에 있어서 커다란 差異가 있다. 즉 都市의 전체는 平均이 45.5%이고 農村에서는 그 切半에도 미치지 못하는 20.7%이다. 그리고 兩區分의 內部的으로는 農村內部에서의 그 比率의 隔差가 都市보다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長期的인 所得分配 構造上에서 農村에

<表 6> 從事上 地位別 大學生 該當家口의 在學生比率(1974年)

從事上地位	全 國				都 市				農 村			
	該家口當數 <sup>1)</sup>	在學生數	%	該家口當數 <sup>1)</sup>	在學生數	%	該家口當數 <sup>1)</sup>	在學生數	%			
雇傭主	57,308	16,316	28.5	43,390	15,292	35.2	13,918	1,024	7.4			
零細自營業主	697,323	33,174	4.8	210,247	26,728	12.7	487,076	6,446	1.3			
家族從事者	6,197	159	2.6	773	53	6.9	5,424	106	2.0			
常傭雇	209,716	40,941	19.5	170,773	38,892	22.8	38,943	2,049	5.3			
臨時雇	30,496	1,429	4.7	21,539	1,305	6.1	8,957	124	1.4			
日雇	122,133	2,381	2.0	77,113	2,299	3.0	45,020	82	0.2			
計	1,123,173	94,400	8.4	523,835	84,569	16.1	599,338	9,831	1.6			

註: 1) 大學校의 該當家口數는 18~21歲의 子女를 가진 家口數임.  
資料: <表 4>와 같음.

<表 7> 所得階層別 高等學生 該當家口의 在學生比率

所得階層	全 國				都 市				農 村			
	該家口當數 <sup>1)</sup>	在學生數	%	該家口當數 <sup>1)</sup>	在學生數	%	該家口當數 <sup>1)</sup>	在學生數	%			
0	7,695	3,247	42.2	5,579	2,739	49.1	2,116	508	24.0			
30,000 未滿	451,254	74,448	16.5	134,358	36,461	27.1	316,896	37,987	12.0			
30,000~60,000 未滿	804,067	247,690	30.8	381,901	156,931	41.1	422,166	90,759	21.5			
60,000~100,000 "	326,053	140,540	43.1	181,666	96,895	53.3	144,387	43,645	30.2			
100,000~150,000 "	98,483	59,741	60.7	64,801	46,227	71.3	33,682	13,514	40.1			
150,000 以上	48,346	33,323	68.9	36,235	27,050	74.7	12,111	6,273	51.8			
計	1,735,898	558,989	32.2	804,540	366,303	45.5	931,358	192,686	20.7			

註: 1) 高等學校의 該當家口數는 15~17歲 子女를 가진 家口數임.  
資料: <表 4>와 같음.

서의 不平等度가 都市보다 더욱 深化될 수 있는 가능성을 內包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高等學生의 경우에 職業別과 從事上의 地位別로도 在學生比率을 計算해 보았으나 바로 앞에서 지적된 것등 이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었다.

### 다. 中學校 教育에 대한 機會의 分布

中學校의 教育機會는 앞서 본 大學이나 高等學校의 경우와는 꼭 對照的이다. <表 8>에 의하면 우선 所得階層別 都市의 在學生比率(58.9%)과 農村의 그것((46.2%)) 사이에는 大學이나 高等學校에서의 차이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그 隔差가 작은 것이 눈에 뜨인다. 그리고 都市나 農村 內部的으로도 所得階層間의 隔差는 그다지 크지 않다. 여기서도 內部的인 機會의 不平等度는 農村이 더 큰데 最高와 最低 比率間에는 약 2배 정도의 隔差가 있다. 그리고 職業別 및 從事上의 地位別 在學生 比率도 特異한 점은 農村의 行政 및 管理職 從事者의 比率이 異例的으로 높은 91.6%인 點과, 農村 日雇勞勤者의 同比率이 28.1%로 대단히 낮은 것 등을 들 수 있다.

## 2. 教育에 대한 地域(市道)別 機會의 分布

市道別 教育機會의 分布에 관한 分析은 資料의 制約上 都市(市部, 즉 郡部 除外) 家口에 대하여서만 計算하여 보았다. <表 9>에는 市道別, 所得階層別 都市大學生 該當家口의 在學生 比率이 表示되어 있다. 表에 의하면 各市道 內部的으로 所得階層에 따라 同比率의 隔差가甚한 곳은 서울, 慶北, 釜山 等地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것이 비교적 낮은 곳은 全南, 濟州, 江原道 등이다.

한편 各市道間의 同比率을 비교하여 보면 서울(18.3%), 忠北(15.0%), 忠南(14.6%) 등이 平均的으로 높고, 慶南(10.3%), 江原(11.0%) 등이 낮다.

그리고 職業別로 보아도 大學生의 경우 家口主의 職業에 따라 各市道の 內部的으로 同比率에 差異가 많았다.

다음에는 高等學校의 教育機會의 分布이다. <表 10>에 表示된 결과를 보면 同比率이 都市間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을 反映하는 때문인지 그 比率이 대단히 비슷한 것이 하나의 特

<表 8> 所得階層別 中學生 該當家口의 在學生比率

所得階層	全 國			都 市			農 村		
	該家口數 <sup>1)</sup>	在學生數	%	該家口數 <sup>1)</sup>	在學生數	%	該家口數 <sup>1)</sup>	在學生數	%
0	8,071	4,380	54.3	5,615	3,267	58.2	2,454	1,113	45.3
30,000 未滿	660,837	240,606	36.4	166,481	74,843	45.0	494,356	165,763	33.5
30,000~60,000 未滿	1,006,962	534,701	53.1	435,450	249,120	57.2	571,512	285,581	50.0
60,000~100,000 "	365,528	236,181	64.6	187,470	124,278	66.3	178,058	111,903	62.8
100,000~150,000 "	98,942	71,664	72.4	58,663	44,346	75.6	40,279	27,318	67.8
150,000 以上	45,406	32,892	72.4	31,304	23,012	73.5	14,102	9,880	70.1
計	2,185,746	1,120,424	51.3	884,983	518,866	58.6	1,300,763	601,558	46.2

註: 1) 中學生의 該當家口數는 12~14歲 子女를 가진 家口數인.  
資料: <表 4>와 같음.

徵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各市道 内部의 所得階層間에는 同比率의 隔差는 상당히 큰 곳이 많다. 이를 職業別로 계산하여 보아도 各市道 内部의으로는 隔差가 비교적 컸다.

마지막으로 中學校의 教育機會의 分布는 이 資料가 都市만 限定한 것이고 또한 中學校인

때문인지 所得階層間에 在學生 比率에 그다지 큰 差異가 없다. 그리고 全體的인 道市間의 同比率도 비슷한 것으로 밝혀졌다.

〈表 9〉 地域別 所得階層別 都市大學生 該當家口<sup>1)</sup>의 在學生比率(1974年)

(단위: %)

所得階層		0	3 萬 원 미	3~6萬 원 미	6~10萬 원 미	10~15萬 원 미	15 萬 원 이상	計
地域								
서울		14.3	1.1	8.2	18.0	38.2	58.7	18.3
釜山		23.1	3.9	8.2	13.7	22.9	49.0	12.7
京畿		13.5	5.1	7.9	14.9	33.0	46.4	11.6
江原		14.3	4.7	8.3	19.6	30.6	31.1	11.0
忠北		16.1	8.9	12.2	22.0	27.3	36.8	15.0
忠南		0.0	5.4	10.8	19.4	34.4	42.6	14.6
全北		0.0	4.3	9.5	27.4	31.6	34.9	13.8
全南		9.0	3.6	10.7	21.9	33.0	22.2	12.2
慶北		13.7	3.0	8.9	18.5	33.0	49.9	13.5
慶南		26.9	3.0	8.3	12.7	20.1	36.4	10.3
濟州		0.0	7.4	16.0	13.2	20.9	33.3	14.0
計		16.2	3.3	8.7	17.3	33.8	53.5	15.0

註: 1) 大學生 該當家口는 18~21歲의 子女를 가진 家口임.  
資料: <表 4>와 같음.

〈表 10〉 地域別 所得階層別 都市高等學生 該當家口<sup>1)</sup>의 在學生比率(1974年)

(단위: %)

所得階層		0	3 萬 원 미	3~6萬 원 미	6~10萬 원 미	10~15萬 원 미	15 萬 원 이상	計
地域								
서울		53.0	27.0	40.9	52.3	72.2	75.7	48.3
釜山		46.2	33.5	42.1	51.0	65.1	75.9	46.6
京畿		43.2	28.8	42.1	54.3	67.9	72.0	43.2
江原		30.6	23.8	39.4	53.1	76.5	66.7	38.9
忠北		10.5	29.2	40.4	58.0	75.1	64.8	43.6
忠南		82.0	32.4	42.1	59.7	70.3	74.0	46.4
全北		0.0	29.1	43.9	62.1	79.4	74.7	45.6
全南		58.6	23.5	42.7	61.4	83.5	66.1	41.9
慶北		35.3	22.2	38.1	50.4	69.0	76.3	40.9
慶南		60.7	26.2	40.2	56.7	71.4	65.9	43.4
濟州		0.0	31.8	49.3	52.2	69.6	62.9	45.7
計		49.1	27.1	41.1	53.3	71.3	74.7	45.5

註: 1) 高等學生 該當家口라는 것은 15~17歲의 子女를 가진 家口임.  
資料: <表 4>와 같음.

## V. 教育關聯 制度, 政策의 所得分配效果

지금까지의 論議의 結果를 土臺로 하여 教育과 直接 또는 間接的으로 關聯이 있는 主要 制度 및 政策의 所得分配에 대한 效果를 檢討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檢討는 물론 斷定的인 것은 아니며 상당한 無理를 각오하고서도 短期的인 政策要求에 어떤 方向이라도 提示한다는 뜻에서 試圖된 것이며 앞으로의 깊은 分析和 檢證을 要하는 研究課題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教育에 直接, 間接으로 關聯되는 制度, 政策은 크게 直接的인 教育制度, 政策으로 區分될 수 있는 것과 그 自體教育制度나 政策은 아니지만 그것이 教育을 媒介로 하여 所得分配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으로 크게 둘로 나누어 考察하되 紙面 關係상 그 政策的 示唆만을 要코자 한다<sup>7)</sup>.

### 1. 主要 教育制度, 政策의 所得分配效果

먼저 獎學金, 補助金, 學費減免 등은 一般的으로 所得의 再分配效果가 크다. 그러나 그 나라의 租稅制度(直接稅 中心이나 혹은 間接稅 爲主나), 補助金 등의 支給方法, 國公立大學 偏重 支援일 때 그곳에 入學하는 學生들의 家口所得의 水準 등등의 變化에 따라 그것이

오히려 逆進的인 分配效果를 가질 수도 있다.

夜間學校, 通信講義, 職業訓練의 機會의 擴大는 教育投資에 대한 供給條件(즉 機會)을 緩和시켜 低所得, 低學歷의 對象者들에게 教育投資를 增加시킬 可能性을 높이고 나아가 그들의 生涯所得을 增大시키므로 결국 所得再分配效果를 갖게 된다.

### 2. 其他 教育關聯 經濟, 社會制度 및 政策의 所得分配 效果

義務教育의 年限延長은 그것이 無償教育인 直接的인 所得再分配效果가 크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無償이 아닐 때에는 그 效果는 正負의 兩側面이 있을 수 있으며 다만 보통의 경우에는 無償 내지 상당한 補助가 一般的인 것이므로 年限延長이 所得再分配에 寄與할 것은 거의 틀림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國家가 상당히 큰 몫의 教育費를 負擔하고 있고 그것이 高等教育과 같은 高學歷에게도 적용될 때에는 만약 租稅制度가 間接稅 爲主의 逆進的인 社會에서는 低所得層이 負擔한 租稅가 오히려 中·高所得層의 子女들이 대부분인 高等教育機關의 學生들에게 各種 支援 形態로 給與될 수가 있다. 韓國의 경우에도 이러한 逆進的인 移轉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된다.

所得稅에 있어서의 費用控除의 문제인데 物的 資產에는 充分한 費用控除를 인정하고 人的 資源에는 않는다면 결국 後者에 대한 投資에 重課하게 된다. 따라서 최근에 導入된 所得에 대한 基礎控除(勤勞控除), 配偶者控除, 扶養家族控除, 醫療費控除 등은 人的資本의 維持 및 形成에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控除는 不充分하며 그만큼

7) 이러한 政策的 示唆의 誘導을 위한 論議는 原報告書 M을 참조할 것.

現行租稅制度가 逆進的이라고 할 수 있다. 人的 資本에 대한 費用控除가 擴大될 때 그것은 報酬率(收益率)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데 이러한 費用控除는 대체로 累進的이 아니고 定額制度이므로 低所得層에게 比例的으로 더욱 教育投資를 有利하게 만든다. 따라서 年次的으로 導入範圍를 넓히고 있는 各種 控除制度는 所得分配에 寄與하는 效果를 가졌다고 하겠다.

公採에 있어서의 學歷制限의 撤廢나 緩和는 正規教育의 機會面에서는 救濟되지 못하였던 주로 低所得層에 대하여 事後的으로 그 機會의 不均等を 補完해 주는 조치라고 볼 수 있으며 所得再分配效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學歷別 賃金隔差는 人的資本의 投資에 誘引을 주기 위하여 어느 정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必要 이상으로 擴大되는 것은 所得不平等을 助長시키므로 소망스러운 隔差를 초과하는 隔差는 그것을 가급적 縮小시켜 나가는 方向이 所得再分配에 寄與한다.

資格, 免許制度는 그것이 公益 등을 위하여 不可缺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分配를 不平等化시키는 負의 效果도 있다는 것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그 運用에는 目標, 範圍, 그리고 資格, 免許의 賦與過程이 適切한지가 充分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Ⅶ. 結 語

지금까지의 考察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맺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教育投資의 決定에 있어서는 個人的인 側面도 있지만 國家社會的인 次元에서 다룰 側面

도 많으며 그것이 지니는 公共財的 性格이나 私的 市場機構가 그것의 投資決定에 有效하게 作用되지 않는 것 등 때문에 公共的인 介入의 必要性이 크다고 하겠다. 그리고 教育投資를 보는 觀點에는 平等主義者的 接近과 「엘리트」의 接近이 있어 그것의 分配的인 意味도 다른데 韓國의 경우는 能力의 不平等보다 機會의 不平等을 重視하는 平等主義者的 見解가 더욱 適合하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教育投資의 需要 및 供給條件間에 正의 相關關係의 可能性이 더 크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입장이 강조되어야 되지 않을까 한다.

韓國에서의 教育投資 收益率推定과 그것으로부터 高等教育에 過剩投資되었다고 結論을 내린 것 등은 韓國의 勞動需要構造가 急激히 變動하고 있고 또한 지금까지의 지나친 低賃金水準이 장래에도 그대로 유지될 展望이 아니기 때문에 收益率의 過少評價로 豫測에 誤謬를 犯할 可能性이 컸다.

教育投資에 대한 供給條件을 보면 아직도 所得水準이 전반적으로 낮고 또한 그 동안 分配의 不平等化 傾向때문에 供給要因의 不平等이 클것으로 推測되며 그것을 反映하여 所得階層別로 1人當 教育費負擔은 전체적으로도 증가하였지만 低所得層에서 더욱 增加하여 왔다. 教育投資의 需要, 供給條件의 差異 때문에 그 結果로서 教育을 받는 機會가 所得階層別, 職業別, 從業上의 地位別, 그리고 都市, 農村別로 대단히 不平等하게 分布되어 있음을 發見하였다. 그것은 특히 高等教育의 경우에 더욱 현저하였다.

이러한 教育機會의 分布의 不平等은 가장 直接的으로는 階層別 所得分配의 平等化 努力에 의해 改善될 수 있겠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國家 社會에 의하여 보다 적극적인 低所得層



에 대한 教育費 支援, 其他 教育關聯 制度와 政策의 改善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때문에 이 論文에서는 비록 그 하나 하나의 制度나 政策에 대한 엄밀한 實證的 分析은 못하였지만 그 制度나 政策 등이 所得分配에 어떠한 效果를 가질 것인지를 基本模型을 이용하여 論議하였다.

앞으로 좀더 直接的으로 教育投資가 所得分配에 影響을 끼치는 메카니즘을 파악할 수 있고, 또한 勞動市場事情이나 非金錢的 便益 등의 變數도 導入되는 模型이 開發되어야 할 必要性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그리고 國家가 支援하는 教育費의 所得分配 效果에 대한 計量的 分析도 앞으로의 課題라고 생각된다.

### ▷ 參 考 文 獻 ◁

金榮奉, 『우리나라 教育의 需要形態 및 經濟成長 寄與分析』, 韓國開發研究院, 研究調查報告書, 第75-09卷, 1975. 6.

南祐鉉, 鄭暢泳, 『우리나라 教育投資의 經濟的 價値分析』, 韓國開發研究院, 研究調查報告書, 第15卷, 1973.

淑明女子大學校, 『教育費現況과 그 節減方案』, 1974.

李榮基, 『教育投資의 經濟成長에 對한 寄與度測定에 關한 研究』, 研究論叢, 第1輯, 1971. 4.

人力開發研究所(科學技術處 委囑), 『인력개발 투자의 효과측정에 關한 연구』, 과학기술처, 1971. 3.

中央教育研究所, 『年間投入되는 教育費 總額推定—1968學年度를 中心으로—』, 調查研究 第53輯, 培英社, 1969. 8.

Becker, G.S., *Human Capital*, 2nd ed., NBER, New Work, 1975.

\_\_\_\_\_, *Human Capital and the Personal Distribution of Income: An Analytical Approach*, W.S. Woytinsky Lecture No. 1, Ann Arbor, Inst. of Public Admin., Univ. of Mich, 1967.

Chiswick, B.R. and Mincer, J., "Time-Series Changes in Personal Income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from 1939, with Pro-

jections to 1985", *JPE*, May/June, 1972 [Part II].

Lee Hansen, W., "Income Distribution Effects of Higher Education", *AER*, May 1970.

Jeong, Chang Young, "Rates of Return on Investment in Education: The Case of Korea," KDI Working Paper 7408, September 1974.

Kim, Kwang Suk, "Rates of Return on Education in Korea", USAID/Korea, September 1968.

Kim, Yungbong, "Education and Economic Growth", KDI Working Paper 7605, October 1976.

Mincer, J., "On-the-Job Training: Costs, Returns, and Some Implications", *JPE*, October 1962.

\_\_\_\_\_, *Schooling, Experience, and Earnings*, NBER, New York, 1974.

Morgan, Robert M. ed., *System Analysis for Educational Change: The Republic of Korea*, Florida State Univ., 1974.

Pauly, M.V., "Mixed Public and Private Financing of Education: Efficiency and Feasibility", *AER*, March 1967.

Ben-Porath, Y., "Production of Human Capital and the Life Cycle of Earnings",

*JPE*, August 1967.

Schultz, T.W., "Resources for Higher Education: An Economist's View", *JPE*, May 1968.

\_\_\_\_\_, *Investment in Human Capital*, Free Press, New York, 1971.

\_\_\_\_\_, "Optimal Investment in College Instruction: Equity and Efficiency", *JPE*, May/June 1972 [Part II].

Thurow, L., *Investment in Human Capital*, Belmont, 1970.